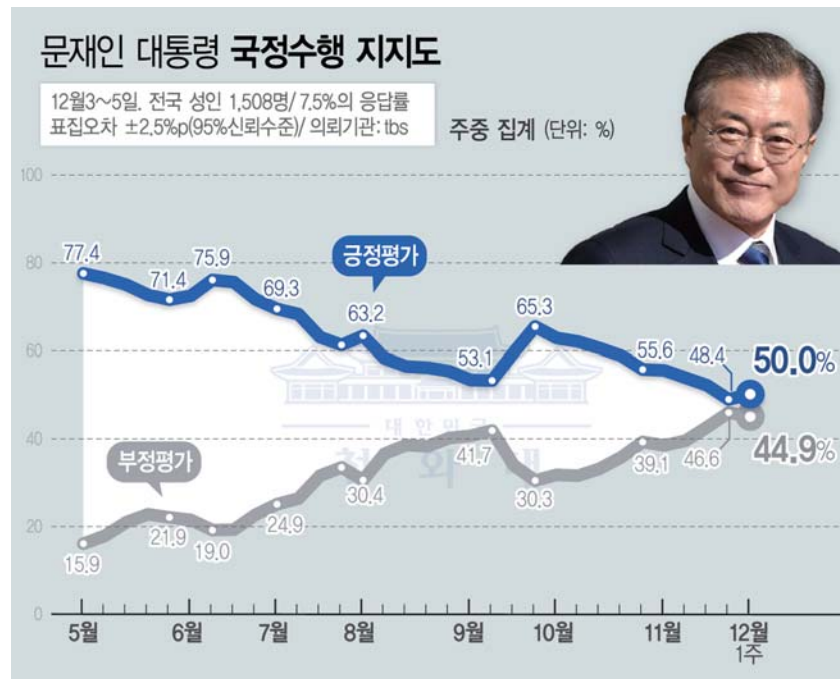


# 문대통령 지지율 50%... 하락세 멈춰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 · 與 조국 관련 공세 오히려 긍정적 민주 38.4% · 한국 24.4% · 정의 7.6% · 바른 6.8% · 평화 2.6% 順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50%대로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서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공개한 12월 1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 · 표본오차 ±2.5%p · 응답률 7.5%)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1.6%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7%p 내린 44.9%(매우 잘못함 27.9%, 잘못하는 편 1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5.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반등세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가 확대되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 등 야당의 각종 공세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호남, 40대, 남성, 노동직과 사무직 정의당 지

지층, 진보층에서 하락했으나, 충청권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주부와 학생, 자영업,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일간집계에서 48.1%로 마감했던 지지율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보도가 확산되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불거진 3일에는 48.9%로 소폭 상승했다.

이어 조 수석 책임론이 야권 중심으로 불거졌던 4일에도 49.7%로 상승했다. 조 수석에게 공직기강 강화 지시를 내린 5일에는 49.8%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38.4%를 기록,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자유한국당(24.4%), 정의당(7.6%), 바른미래당(6.8%), 민주평화당(2.6%)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실 주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한국당 의원들 "박근혜·이명박 재판 불공정... 석방후 진행해야"

### "정치 재판이자 정치 보복"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둘러싼 작성을 둘러싸고 친박·비박 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6일 전직 두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는 심여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에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고 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한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정욱 변호사는 "양형보다 중요한 게 구속기간 만료 문제인데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국민 61.3% 환영"

### 환영(61.3%)이 반대(31.3%)보다 2배 가량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국민의 61.3%가 찬성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5일 성인 6304명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는 응답이 61.3%였다고 이날 밝혔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

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3%, 모름·무응답은 7.4%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9.7%)에서 환영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0.3%), 경기·인천(59.0%), 서울(58.7%), 부산·울산·경남(55.1%)에서도 절반 이상이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49.4%)도 환영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73.6%)와 30대(65.9%), 20대(61.0%)에서 환영 여론이 60%를 넘었고, 50대(59.9%)와 60대 이상(50.0%)에서도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에서 각각 82.0%, 61.6%가 환영 여론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49.6%(환영 36.8%)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8.8%), 정의당(83.4%), 무당층(54.4%)에서 과반이 환영 여론을 차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환영 여론이 각각 18.3%, 28.9%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런 조사에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304명 중 500명이 응답(7.9%의 응답률)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사회적 대타협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단체협약 유예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예정된 조인식이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마지막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작은 문제 하나로 협상이 타결되

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사 상생협력 모델"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은 여기에 전폭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석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조인식 무산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이 성원하고 있다. 노사 간 반발적 양보해 마지막 타결에 이르게끔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광산구**